

정청래 '무인기 발언' 날 선 공방

정 의원 "北 소행 아닐 수도"

새누리 "친북세력 자인" 맹공

새정치 "당 입장파 무관" 선긋기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무인기의 출처가 북한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발언을 놓고 14일 새누리당과 정 의원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파문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 의원의 소속 정당인 새정치연합은 정 의원 발언이 당론과 무관하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천안함 사건을 비롯해 안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야권은 앞장서 음모론을 제기했다"며 새정치연합의 입장 표명을 요구

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의원이 국민을 희롱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북한의 김정임을 기쁘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친북세력 주장에 힘을 실는 것은 친북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국방부 발표를 보고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정청래 의원은 어느 나라 사람이나"며 새정치연합에 정 의원의 자체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정 의원의 발언은 당의 입장과 무관하다"고 거리를 뒀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인기에 대한 정 의원의 발언은 당의 입장과 무관한 정 의원의 개인 생각일 뿐"이라며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무인기의 진위에 대해 군과 정보 당국의 무능한 대응을 한결같

이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의원의 발언이 '제2의 천안함 논란'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당내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인기 논란에 대해 집의했을 뿐 북한 것이 아니라고 확정적으로 단 한마디도 말한 바 없다"며 "정당한 의정 활동을 매카시즘 광풍으로 몰고 가는 새누리당에 정중히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에 적혀 있는 글씨를 지적하며 "우리 애아 한글이다. 북한 무인기라는데 왜 아래아 한글이 붙어 있느냐. 북한에서 보낸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국회 '5·18기념곡 지정' 논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요구가 발목잡기라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발언을 비판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 '민생' 화두로 對與공세 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민생심판론'을 내세워 대외공세에 나섰다.

기초선거 무공천 당론 반복으로 당초 계획했던 '공약 파기나, 약속의 정치'의 구도가 퇴색하자 '민생'을 전면에 내세워 여론과 차별화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국민의 정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박근혜 정부는 민생 복지 공약을 줄줄이 파기한 것은 물론 어떤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누가 국민의 고단한 민생을 챙기는지 선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들도 가세했다. 김홍석 최고위원은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달하는 데다 국가부채는 몇 배나 늘었다"라고 반문하며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심판론과 민생문제를 지적하는 투 트랙 전략을 짜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윤석 최고위원은 "노동자·서민의 삶이 어려워지고 실질적인 생활 급여가 삭감되는 데도 '국민행복'이다, '창조경제'다 하는 와닿지 않는 단어만 난무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를 민생 선거로 치러 한국 사회의 답

답함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 문제 해법의 하나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소득양극화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7일~1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일주일 전보다 4.9%포인트 하락한 28.5%를 기록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6·4 지방선거 현장

광역단체장·시도교육감

강은태 "수도권 활성화-지방기업 역이주 우려"

강은태 광주시장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개발제한을 받아왔던 수도권외의 공적시설 혜택 등을 담은 법률 개정 발표로 지방기업의 수도권 역이주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국토균형발전은 헌법에서 정한 국가의 책무인 만큼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중단하고, 비수도권을 위한 선(先) 지방육성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광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적극 검토"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 의원은 14일 광주 평생교육 허브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평생교육사 협의회 관계자 30여명과 간담회에서 "고령화 100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광주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왕복 "학교협동조합 공론화 필요"

김왕복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4일 "학교협동조합을 광주의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교육주체들의 정책간담회를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협동조합을 통해 학교현장의 공동체 정신과 교육문화의 생산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물품 공동구매, 아침밥 챙겨주기, 장학 사업 등을 추진해 교사·학생·학부모의 자치 역량과 자율성을 진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곤 "고교 2·3학년 통합 교육과정 도입"

정희곤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4일 선행학습금지법 부작용의 대책으로 고교 2·3학년의 통합 교육과정 도입을 제안했다. 정 예비후보는 "11월 수능일에 맞춰 고3 교실은 2학년 또는 3학년 1학기에 진도를 끝내고 문제풀이 중심의 수능 준비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선행학습금지법이 시행되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적은 일반고는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오형근 "국공립 어린이집 적극 유치 추진"

오형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14일 "출산을 해도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동구를 만들겠다"고 보육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오 예비후보는 "보육의 질이 개선되어야 되돌아오는 동구를 이룰 수 있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추진, 야간 돌봄이 확대, 중소사업장의 공동 보육시설 설치 지원 등 보육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김병도, 광주 북구청장 출마 선언

김병도 전 안철수 대선후보 정책간사는 14일 "주민 주권시대를 열어가는 변화가 시작됐고, 그 속에서 활력 부구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한다"며 광주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간사는 "주민자치의 메카였던 북구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며 ▲주민중심예산제 ▲행정동 개편 ▲복지분야 종사자 권익 향상 ▲북구 정확회 저소득 가정 적극 지원 등의 10대 약속을 제시했다.

강은미, 선거사무실 개소 본격 선거운동

재선 도전에 나선 강은미(정의당·서구 4선거구) 광주시의원은 지난 12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정의당 전호선 대표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개소식에서 강 의원은 "일 잘하는 시의원이라는 애칭을 주민들로부터 받았다"며 "재선에 반드시 성공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실천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임택, 광주시의원 출마 공식 선언

임택 전 동구의원이 광주시의원(동구 제1선거구)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 등록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임 예비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구의 적은 인구와 고품사 회라는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발전전략과 아시아문화전당이 위치한 점을 활용하는 정책을 통해 동구의 부활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길수 "예산 불용액 최소화 인센티브 부여"

김길수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의원(서구 2선거구) 예비후보는 14일 "예산전문가로서, 광주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한 기관·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광주시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불용액이 많음을 발견했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방정현 "광주를 문화산업의 메카로"

방정현 광주시의원(동구 2선거구) 예비후보는 14일 유권자들과 광주 현안문제를 토론하며 "광주를 방송·연예·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 같은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예비후보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한국문화예술회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을 거점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연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예정)
- 한빛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이전)
- 김스타워 지하 1층~지상 5층(분양예정)

나주 슬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오늘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모텔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 현재 영업중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텔,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경 교통양호 매매 15억

전/대지/과수원

- 나주시 금천면 배과수원(일부 대지포함) 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 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14,215㎡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 지역 매매 7억
- 나주시 다시면 전 152,000㎡ 임야 86,000㎡ 대지, 주택포함 매매 32억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방동참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5천만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차선 도로변 배과수원(일부 대지 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배 과수원 2,975㎡(대지포함)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 지역, 매 1억 4천만
- 나주시 봉황면 죽서리 면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1억7천만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결공시

사건번호	피고인	사건명
2014.고단 103	주식회사 한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04	주식회사 한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05	주식회사 한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06	주식회사 한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07	유한회사 유팩트렌스	도로법위반
2014.고단 108	유한회사 대신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4.고단 109	유한회사 대신화물운수사	도로법위반
2014.고단 110	유한회사 전국화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11	동아빌투 주식회사	도로법위반
2014.고단 112	유한회사 전국화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13	유한회사 전국화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14	유한회사 전국화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15	유한회사 전국화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16	유한회사 전국화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17	유한회사 전국화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18	유한회사 전국화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19	유한회사 전국화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0	유한회사 전국화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1	유한회사 전국화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2	유한회사 전국화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3	유한회사 전국화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4	유한회사 전국화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5	유한회사 전국화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6	유한회사 전국화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7	유한회사 전국화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8	유한회사 전국화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29	유한회사 전국화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30	유한회사 전국화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31	유한회사 전국화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32	주식회사 한일운수	도로법위반
2014.고단 133	주식회사 아인기업(변경:주식회사 세리로제)	도로법위반
2014.고단 134	주식회사 아인기업(변경:주식회사 세리로제)	도로법위반
2014.고단 135	주식회사 한일운수	도로법위반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4년 4월 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한중환